

## 19\_1\_한국어\_石造阿弥陀如来坐像

석조 아미타여래 좌상

이 돌부처는, 헤이안 시대(794-1185)부터, 교토와 오쓰를 잇는 길인

「야마나카고에」에 면해 안치되어 있습니다.

전체 높이 약 2.5 미터, 좌상의 높이는 약 1.4 미터입니다.

보존 상태도 양호하며, 가마쿠라 시대(1185-1335)의 양식입니다.

교토 기술자의 작품으로 생각됩니다.

야마나카고에의 교토 쪽 입구에 있는

기타시라가와 돌부처와, 오쓰 쪽 입구의 시가사토 돌부처와 함께, 가도를 이용했던

여행객의 안표가 되었습니다. 또, 그 지역에서도 신앙 받고 있습니다.